

# Global Asset Talk

## 선택지가 다시 다양해지는 조짐

### 글로벌 자산시장 동향 : 리스크 경계감 다소 완화되며 글로벌 자산시장 반등

미국 정부가 12월까지 부채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리고 감세안에 대한 의지를 다시 피력하며 재정관련 긴장감이 낮아진 한편, UN의 북한에 대한 무역규제 소식 등이 전해지며 전반적으로 높아졌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다소 풀리는 듯하다. 여기에 ECB의 비둘기적인 스탠스와 맞물려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감이 낮아진 점도 시장심리 개선을 한 몫 거들고 있다. 물론 완전한 해빙기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변동성을 야기하던 변수들에 대한 경계심리는 일단 누그러지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원자재 등 일부 자산가격은 하락했지만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국내의 주식과 국채에서 수익을 거두며 '하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는 전주대비 +0.85% 상승하였다.

### 글로벌 자산시장 전망 : 물가 움직임 등을 고려해 보면 선택권이 다양해져

지난주에 밝혔듯이 시장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은 사실 2013년에 대부분 경험했으며, 펀더멘털 리스크로 전이될 사안이 아니라면 시장의 추세가 바뀌는 과정은 아닐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다. 그렇다면 조정 압력이 발생할 경우 어떤 자산을 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해 보인다. 여기에 이벤트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다소 낮아진 만큼 상대적으로 선택지는 넓어진 듯 하다.

우선 물가 쪽에 초점을 맞춰보자. 중국 생산자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은 공급축소로 인해 비철금속 가격 등에 긍정적인 신호일 뿐만 아니라 신흥국 수출도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14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에 노출될 것이다. 이 경우 상대적인 금리인하 여력 등이 남아 있는 신흥국 국채도 선택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IT는 여전히 최우선 자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IT, 신흥국 주식, 비철금속 그리고 신흥국 국채 등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 Asset Allocation

## 자산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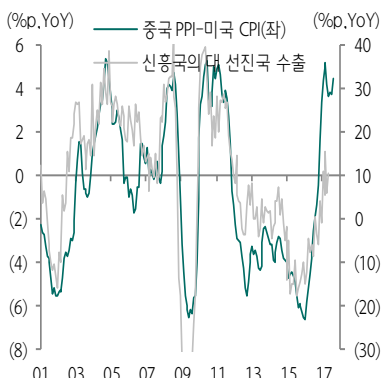
Economist/자산배분 소재용  
02-3771-7565  
jyso30@hanafn.com

RA 전양민  
02-3771-7552  
yangmin\_chun@hanafn.com

###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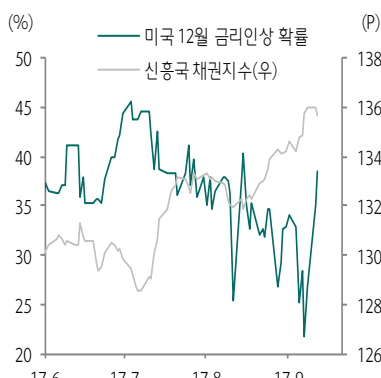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신흥국 수출 환경 유지



자료: Thomson Reuters,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美 CPI 기대치 하회시 신흥국 국채도 불만 해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표1. 하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주간 성과

자산그룹(BM)	9월 비중	자산군	9월 비중	벤치마크	BM 수익률	BM 수익률	PF 수익률
주식 (MSCI ACWI)	45.8%	국내	18.0%	KOSPI	1.66%		
		선진국	17.4%	MSCI WL	1.62%	1.61%	1.62%
		신흥국	10.4%	MSCI EM	1.55%		
국채 (JPM GBI BI)	29.4%	국내	16.7%	국채+통안채(자체합성)	0.37%		
		선진국	7.7%	JPM GBI BI	0.10%	0.10%	0.32%
		신흥국	5.0%	JPM GOV BI EM	0.51%		
크레딧 (Bloomberg Global IG)	13.4%	국내	6.9%	국내 크레딧(자체합성)	0.16%		
		투자등급	4.4%	Bloomberg Global IG	-0.38%	-0.38%	0.00%
		하이일드	2.1%	Bloomberg Global HY	0.27%		
대체투자 (S&P GSCI TR)	4.6%	원자재	2.1%	S&P GSCI TR	-0.44%	-0.44%	0.32%
		리츠	2.5%	FTSE REITs	0.95%		
유동성(Cash Index)	7.0%	유동성	7.0%	KRW Cash Index	0.02%	0.02%	0.02%
<b>주간수익률</b>						<b>0.70%</b>	<b>0.85%</b>
<b>연초대비 수익률</b>						<b>8.37%</b>	<b>9.05%</b>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표2. 마켓 드라이버와 ETF

**IT와 신흥시장을 바라보게 하는 환경** :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연장과 지정학적 긴장감 완화 등 다시 높아진 위험자산 선호현상에 뉴욕증시 3대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갱신. 이에 견고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기술업종 주식의 상승세를 다시 기대해 볼 만. 또한 물가 상승률 부진으로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8월 중국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비철금속 가격 상승과 신흥국 수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비철금속과 신흥시장 주식, 채권 등에도 관심 가져 볼 만

종목코드	설명	최근 주가 흐름
IXN	<p><b>iShares Global Tech ETF</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세계 IT업종에 시가총액 비례방식으로 투자하는 '전세계 IT주식 ETF'</li> <li>미국 비중이 75%를 차지하며 일본, 한국, 대만의 글로벌 IT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어 글로벌 IT주식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음</li> <li>위험자산 선호도 다시 높아지며 펀더멘털이 확고한 글로벌 IT주식의 가격 상승국면 재진입</li> </ul>	<p>(달러) — 전세계 IT주식(IXN)</p>
IEMG	<p><b>iShares Core MSCI Emerging Markets ETF</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SCI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MSCI 신흥시장 주식 ETF'</li> <li>한국도 지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흥국 대형주로 구성된 EEM과 달리 일부 중소형주도 편입</li> <li>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전망 약화와 비철금속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신흥국의 수출 환경 개선 등은 신흥시장 주식에 우호적</li> </ul>	<p>(달러) — 신흥시장 주식(IEMG)</p>
DBB	<p><b>PowerShares DB Base Metals Fun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리, 아연, 알루미늄 3개의 주요 산업금속 원자재 선물에 투자하는 '산업금속 선물 ETF'</li> <li>구리, 아연, 알루미늄 비중이 각각 1/3씩을 차지하며 선물 이월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li> <li>중국의 철강 공급축소와 생산자물가 지표 개선으로 비철금속 가격 상승에 우호적인 환경 지속 중</li> </ul>	<p>(달러) — 산업금속 선물(DBB)</p>
EMLC	<p><b>VanEck Vectors J.P. Morgan EM Local Currency Bond ETF</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국 통화표시로 발행된 신흥국 채권에 투자하는 '로컬통화표시 신흥시장 채권 ETF'</li> <li>정부채 비중이 98%로 사실상 신흥국 국채에 투자하며 채권수익률이 높아 인컴 투자자들에게 인기. 하지만 환 노출로 인해 환율 변동에 민감한 편</li> <li>미국은 물가 상승률 부진 등 연내 기준금리 인상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신흥시장 국채는 상대적인 금리인하 여력 남아 있어</li> </ul>	<p>(달러) — 로컬통화표시 신흥시장 채권(EMLC)</p>

\* 최근 주가 흐름은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총수익률 지수